



차 례

Contents

이슈와 진단	02
•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03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	22
• “13.5계획”기간 중국 전기에너지 대체 추진방안 실시	23
• 휴대폰과 인터넷 금융거래 실명제 등록 실시	25
• 동북진흥의 새로운 위치와 목표	26
• 랴오닝 선양 첨단 장비 제조 단지가 동북 진흥의 신엔진	27
• 중국 지린성의 농업+인터넷	28
• 2016년 베이징 세계관광발전대회 개최	30
• 구이양시 빅데이터 “십 · 백 · 천 · 만” 인재육성계획 시행	31
현대중국의 이해	34
• 중국공산당 창당과 마오쩌둥의 징강산 입산	36
충청중국포럼 소식	44
• 제11회 충청중국포럼	45
중국 동향과 진단 발간목록	50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박인성 · 비웨이닝(畢衛寧)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I. 무엇이 문제인가?

- 방한 '요우커(遊客)'¹⁾ 규모가 최근 10년간 8배 이상 증가했듯이, 급속한 증가추세 속에 2007년 107만명으로 100만명 선을, 2011년 222만명으로 200만인선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613만명을 기록하여 3년만에 약 3배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547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이어지는 증가 추세로 볼 때 방한 '요우커 1000만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그러나 2015년 방한 '요우커' 중 충남지역 방문자 비중은 0.7%에 불과하고, 대전, 충북, 세종을 포함한 전체 충청권 지역 방문 '요우커' 비중(1.3%)도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충남의 관광전략에 중대한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남의 당면 문제와 과제는 무엇인가?
- 도와 시·군의 중국측 교류협력 대상 파트너지역에 대한 조사연구와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가 미흡하다.

1) 중국어로 '요우커(遊客)'는 일반적인 관광객이란 뜻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요우커'를 중국인 관광객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기초로 진행중인 대(對)중국 교류협력을 도와 15개 시·군 간의 전략적 연계, 그리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의 목적과 대상, 관광 및 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지역 홍보와 장소마케팅 측면의 문제

충남도내에 소재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 조차 안면도 등 충남의 유명 관광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 관광자원과 교통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측면의 여건과 경쟁력에도 한계가 있다. 도시문화와 쇼핑 측면에서 서울-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고, 자연풍광과 교통 편리성, 그리고 관광수용시설 측면에서도 제주도 등과 경쟁하기 쉽지 않다.

국제공항이 없고, 항구와 국제항로 발전도 뒤쳐져 있고, 지역간 및 지역내 연결 육로교 통망과 대중교통 여건도 취약한 부분이 많다.

- 국비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 추진과 별도로, 지자체 스스로 능력에 맞추어 실천 가능한 사업(과제)을 구분하여 자력으로 추진하려는 문제의식과 의지가 부족하다.

- 중국의 경제성장과 인민 소득증대에 따라 향후에도 방한 ‘요우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남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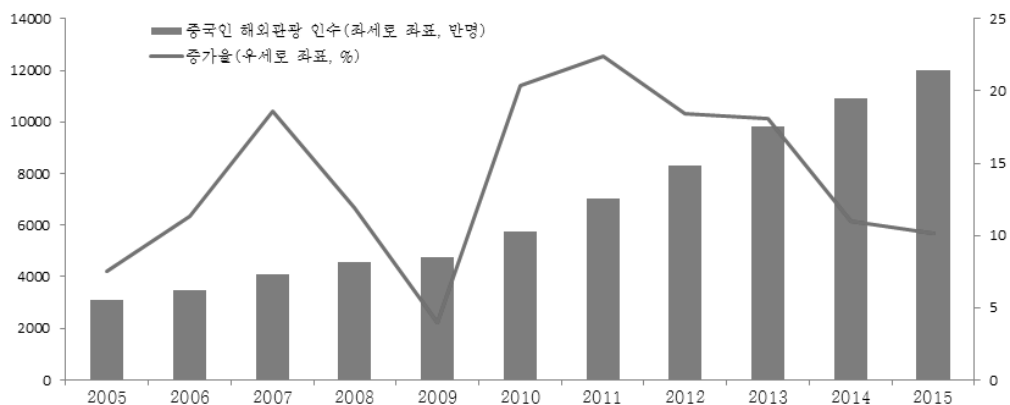
-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문제 의식하에 중국인 출국관광객과 출국관광시장의 동향, 그리고 방한 ‘요우커’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 정리하고, 충남의 대응전략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인 출국관광의 발전동향과 특징

- 1983년 11월, 중국 광둥성 주민들이 여행사를 통해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에 거주하는 친인척 방문을 시작했고, 그후 중국 ‘요우커(遊客)’의 출국(出境)관광과 출국관광시장은 규범화,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증가 및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중국 공민 자비 출국관광 관리 잠정방법(中国公民自费出国旅游管理暂行办法)’이 시행된 후부터는, 중국 공민들이 더 이상 ‘친지방문’같은 이유나 명분 없이도 출국관광이 가능하게 되었다.

- 1998년부터 한국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요우커’들의 자비 출국관광 목적지 국가로 지정되었고, 이후 방한 ‘요우커’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메르스 발생 영향으로 인해, 그 수가 약 547만명으로 전년대비 6.2% 하락했으나, 올해들어 증가추세가 다시 가속화 되고 있다.
- 2015년말 기준, 중국정부가 자국민의 출국관광 대상 목적지로 개방한 곳이 151개 국가와 지구(地區)이고, 중국인 출국관광객 총인원수는 1억 2000만 인·회로 최근 10년간 약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의 목적지에서의 소비총액은 2015년 2,495억 달러로 전년도(1,648억 달러)에 비해 약 53% 증가했다.
- 최근 10년 간 중국인 출국관광객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관광객수 규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 출국관광객수는 2005년 약 3103만 명에서 2015년 약 1억 2000만 명으로, 연평균 약 14%씩 성장했다.(<그림 1>)



〈그림 1〉 출국 ‘요우커’ 수 추이(2005-2015)

자료: (2005-2015) 중국통계연감

- 중국의 중상위 계층 주민 가정에서 출국관광은 이미 가정생활의 주요 이벤트중의 하나가 되었다. 조사대상 출국관광객중 매년 1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다고 답한 사람 수가 약 74%였다.

2015년 출국관광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2000달러 이상으로, 중국 도시주민 평균수준의 5배를 넘는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 ‘요우커’들의 해외에서의 소비규모가 부단히 증대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요우커(遊客)’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수속 간편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요우커’들이 여행 목적지를 국외로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 국내와 해외의 소비가격 차이, 그리고 인민폐 가치의 지속적 상승이다.

2005년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의 개혁으로 인민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중국인들이 관광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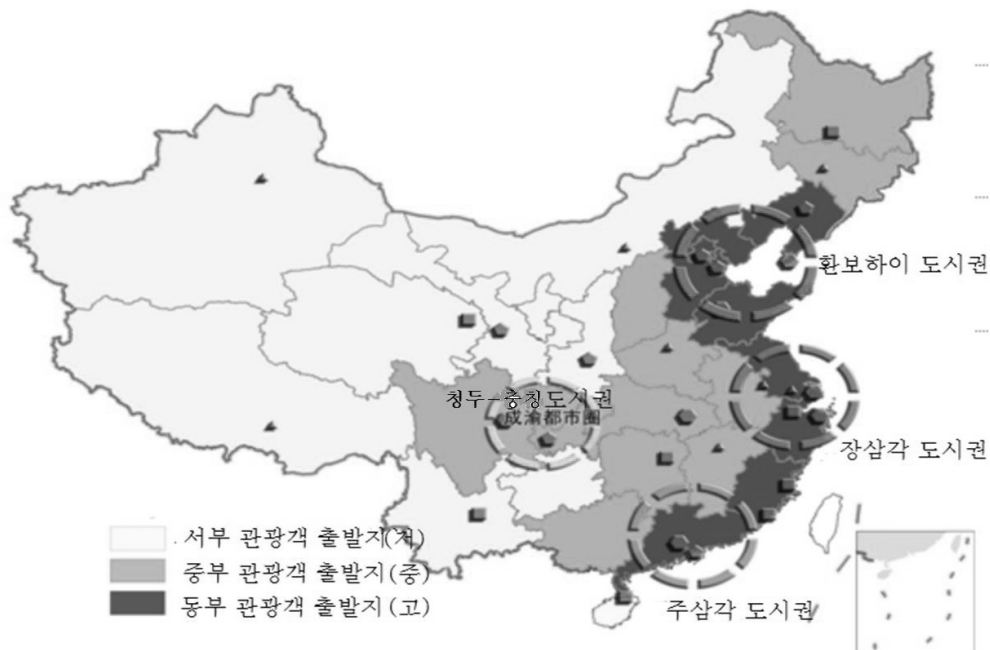
2009년 인민폐 무역 결제가 시작된 후에 해외관광시 인민폐 결제 편리성이 개선되었다.

- 중국인 출국관광의 주요 출발지는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에서 환보하이(環渤海)도시권, 장강삼각주(長三角)도시권, 주강삼각주(珠三角)도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그림 2〉)

이외에도 동북지역의 지린성(吉林省)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서남지역의 청두(成都)-충칭(重慶) 도시권, 화중지역의 후난성(湖南省), 안후이성(安徽省), 후베이성(湖北省) 등 지역의 비중도 큰 편이다.

즉, 화남(華南), 화북(華北), 화동(華東)지구에 집중되어 있고, 이중 상하이시, 광둥성, 베이징시의 점유비중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이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산둥성 등 연해지구 성(省)급 지구들이다. 이외에도 동북지구의 랴오닝성(遼寧省), 화중지구의 후베이성, 서남지구의 쓰촨성(四川省)의 점유비중도 비교적 큰 편이다.

충남과 마주보고 있는 황하이(黃海)와 보하이(渤海) 연해지구인 상하이시, 저장성(浙江省), 장쑤성(江蘇省), 산둥성, 베이징, 랴오닝성(遼寧省)을 타깃지역으로 선정한 후 장소 마케팅 등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이 요구된다.



〈그림 2〉 출국 '요우커'의 출발지 분포

출처: 중국관광연구원

-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과 선호성 등의 영향으로 한국, 일본, 태국과 싱가포르가 출국 '요우커'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목적지가 되었다. 2014~2015년 기간중 중국인 출국 '요우커'가 선택한 목적지별 비중은, 아시아(77.7%), 유럽(32.1%), 미주(美洲, 20.3%), 오세아니아(10.4%), 아프리카(4.4%) 순이다.²⁾
- 출국 '요우커'가 해외방문 대상도시를 선택할 때에 중시하는 것은, 교통 편리성과 도시의 유명도로 나타났다. 단거리 관광코스 중에는 한국,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도시를 선호하고, 장거리 관광코스 중에서는 유럽, 미국, 호주의 도시를 선호했다.
- 출국 '요우커'들이 방문한 비중이 높은 국가와 지구는 한국, 홍콩, 태국, 일본, 타이완, 인도네시아, 몰디브, 싱가포르, 미국, 캄보디아 순이다. 또한, 방문 비중이 높은 도시를 단거리코스와 장거리 코스로 구분해서 순위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2) 2015年度中国公民出境(城市)旅游消费市场调查报告, 2쪽

단거리 코스 상위 10위 도시: 서울, 방콕, 도쿄, 오사카, 나고야, 제주도, 싱가포르, 인천, 고베, 나라 순이다.

장거리 코스 상위 10위 도시: 파리, 런던, 시드니, 로스앤젤레스, 로마,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멜버른, 베네치아 순이다.

〈표 1〉 2015년 중국인 해외관광의 인기 도시의 순위

순위	단거리 코스		장거리 코스	
	방문도시	재출국 방문도시	방문도시	재출국 방문도시
1	서울(한국)	서울(한국)	파리(프랑스)	런던(영국)
2	방콕(태국)	도쿄(일본)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3	도쿄(일본)	몰디브	시드니(호주)	시드니(호주)
4	오사카(일본)	제주도(한국)	로스앤젤레스(미국)	로스앤젤레스(미국)
5	나고야(일본)	오사카(일본)	로마(이탈리아)	로마(이탈리아)
6	제주도(한국)	싱가포르	뉴욕(미국)	하와이(미국)
7	싱가포르	나고야(일본)	워싱턴(미국)	뉴욕(미국)
8	인천(한국)	방콕(태국)	샌프란시스코(미국)	밀라노(이탈리아)
9	고베(일본)	부산(한국)	멜버른(호주)	두바이(아랍에미리트)
10	나라(일본)	치앙마이(태국)	베네치아(이탈리아)	멜버른(호주)

주: 홍콩, 마카오, 대만은 포함하지 않음.

출처: Ipsos

- 출국 ‘요우커’ 중에서 1980년대 이후 출생자, 즉 “바링허우(80後)”가 약 60%를 점하고 있고, 단거리 관광코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연령대는 30-40대까지가 가장 많고, 1인당 월평균소득 수준은 약 2000달러이다.

또한, 외동자녀(獨生子)의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한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를 해외여행에 동반하는 경향이 강하다.

장거리 코스의 경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크고, 연령으로는 20-30대까지의 비중이 높고, 월평균 소득 수준은 2500달러를 넘는다.

- 출국 ‘요우커’의 85%가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 목적지와 일정 등 관광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여행사 홈페이지(51.8%), 여행사 영업점(30.2%), 목적지(7.6%), 기타(10.4%) 등이 있다.

- 관광유형별 점유비중은 단체관광 37.4%, 자유(개별)관광 31.4%, 반(半)자유관광 18.7%였고,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요우커’들의 관광일정은 3~5일로 비교적 짧았다.

유럽과 미국 도시를 선택한 ‘요우커’는 6일 이상 관광일정이 많았다.

여행사 제공 관광상품 중에서도, 자유행(自由行) 관광상품의 선택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단체관광이다.

- 2015년 출국 ‘요우커’들의 해외에서의 쇼핑한 금액이 1인당 평균 약 2000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했고, 관광객의 해외 소비규모 세계 1위 국가가 되었다.

쇼핑을 많이 하는 집단은 “바링허우(80后)”, 즉,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출생한 젊은 연령층 세대이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 도시에서의 소비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의 태국과 싱가포르였다.

한국,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품과 전자상품, 일반물품 구입비 비중이 컸고,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는 숙박, 입장권, 그리고 사치품과 기념품 구입비 비중이 컸고, 동남아지역에서는 유흥비 소비 비중이 컸다.

- 여행 시 가장 중시하는 문제는 교통, 숙박, 음식료 순이고,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언어소통, 소지한 금전 안전보관, 문화차이 순이다.

유럽과 미국 도시 방문 ‘요우커’중에는 문화차이와 표지판 방면 문제를 걱정하는 비중이 높았고, 동남아 도시 방문자 중에는 신체와 소지금품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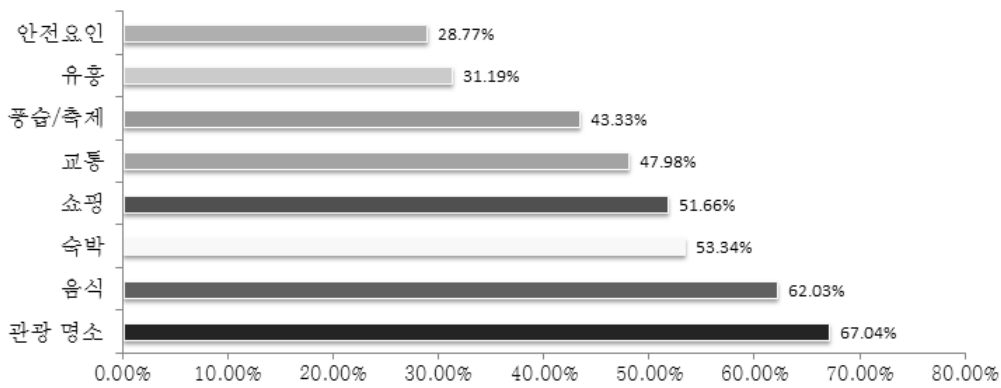
- 출국 ‘요우커’들이 선호하는 요소는, 1위가 아름다운 경관이고, 그 다음이 각 도시의 독특한 문화다.

일본과 한국의 도시에 대해서는 음식과 관광상품 가격, 일상생활용품 등 쇼핑대상 상품의 질과 가격을 중시했다.

- 응답자중 49.2%가 해외여행 대상 도시를 선택할 때 이미 출국방문경험이 있는 친

지 등의 자문을 구한다고 했다. 즉, 방문 목적지를 선택할 때 입소문과 세평(世評)을 중시한다.

- 출국 ‘요우커’가 출국하기 전에 알고 싶어하는 관심정보는, 관광명소, 음식, 숙박, 쇼핑, 교통, 풍습 및 축제, 유흥, 안전요인 순이었다. (〈그림 3〉)
한국과 일본에서 대해서는 쇼핑관련정보, 유럽과 미국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정보, 그리고 동남아지역에 대해서는 음식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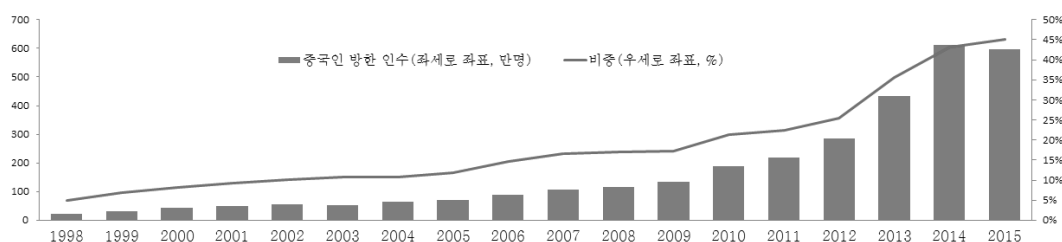
〈그림 3〉 출국전 ‘요우커’가 중시하는 관광관련 정보(2015)

자료: Ipsos

Ⅲ. 방한 ‘요우커’의 특성

1) 방한 ‘요우커’의 행태 특성

- 방한 ‘요우커’ 수는 1998년 약 21만명에서 2015년에 598만명으로, 18년간 약 28배 증가했고, 2013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방한 외국인관광객 총수에 대한 비중 1위 국가가 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방한 ‘요우커’ 수가 433만명으로 400만명 선을, 2014년에 613만명으로 600만명 선을 돌파했고, 방한 외국인관광객 총수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1998년 5%에서 2015년 45%로 증가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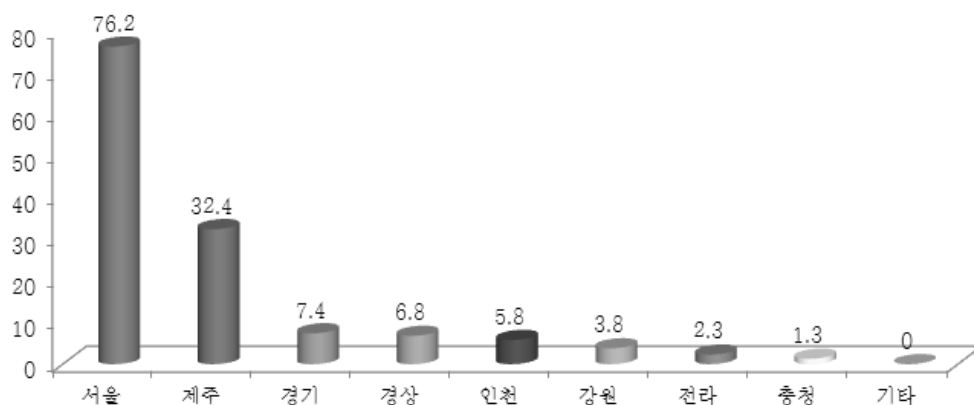


〈그림 4〉 방한 ‘요우커’ 수 추이(1998~2015)

주: 방한 관광객 총인수중 중국인 관광객의 점유 비중임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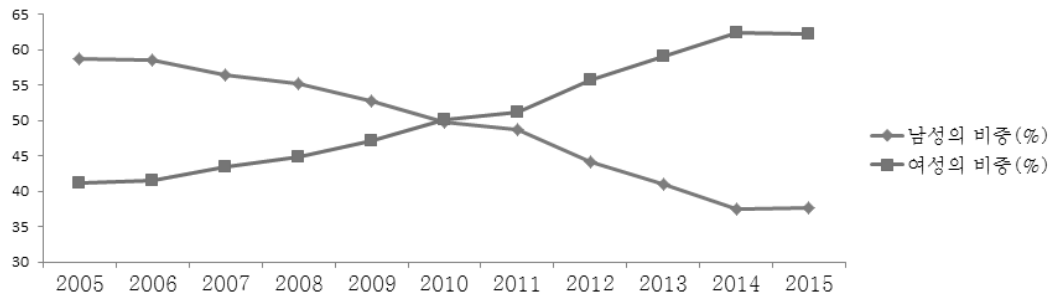
- 2015년, 방한 ‘요우커’의 국내 방문 목적지는 서울(76.2%)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제주(32.4%)이고, 충청권은 1.3%로 가장 낮았다.〈그림 5〉
충청권내에서는 충남(0.7%), 대전(0.3%), 충북(0.3%) 순이다.
충남지역 주요 방문 관광지는, 천안 독립기념관(35.4%), 아산 외암민속마을(15.9%), 태안-안면도-만리포(14.1%) 순이다.
충남지역외에 충청권내 주요 방문지는, 대청호반(12.9%), 유성온천(11.3%), 계족산항톳길-계족산성(8.0%), 충주-수안보온천(7.7%), 엑스포과학공원(7.7%), 세종호수공원(3.3%) 등이다.



〈그림 5〉 방한 ‘요우커’ 국내 지역별 방문 비중(2015) (단위: %, 중복응답)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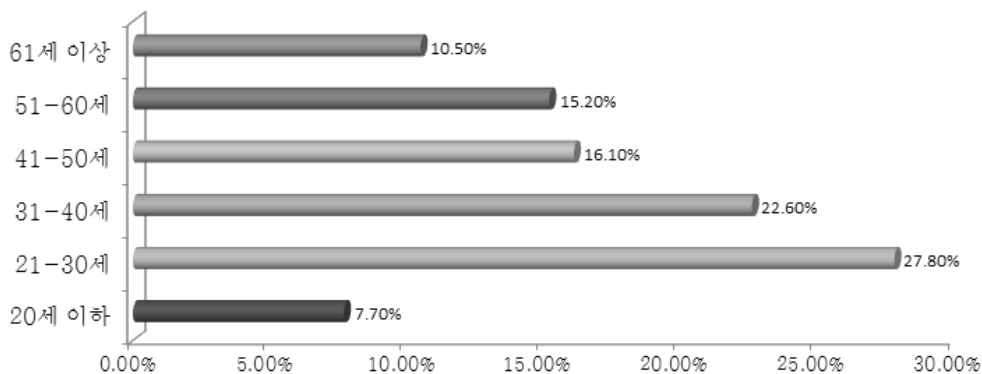
- 방한 '요우커'의 성별(性別) 비율을 보면, 2010년 남녀간 비중이 역전된 이후, 여성 '요우커'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여성 62.3%, 남성 37.7%이다.(〈그림 6〉)



〈그림 6〉 방한 '요우커'의 성비(性比) 추이(2005-2015)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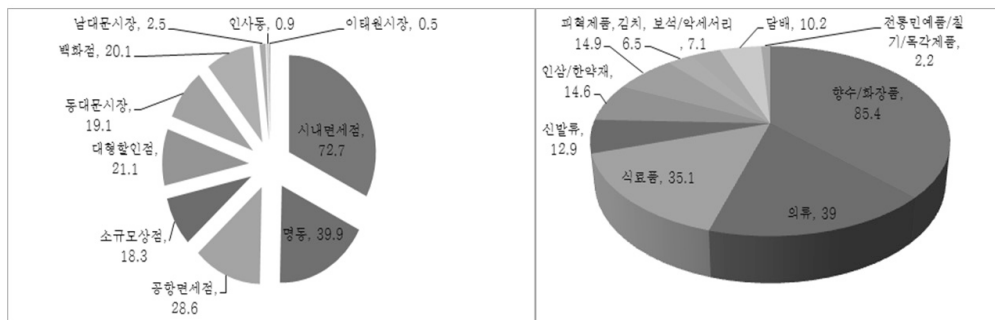
- 연령별 비중은 2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0대 연령층의 비중도 비교적 높다. 단, 젊은 층의 비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큰 폭의 변화가 없으나, 50대 이상의 장·노년층 관광객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방한 '요우커' 연령별 비중(2015)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2015년 방한 ‘요우커’ 들이 한국 방문 중 가장 선호한 행태는 쇼핑이고, 가장 인기 있는 구매 품목은 향수와 화장품이고, 쇼핑장소는 서울시내 면세점으로 나타났다. 즉, 쇼핑(37%), 자연경관 감상(18%), 식도락(15.6%), 고궁-역사유적방문(4.5%), 테마파크(4.1%) 등 순이다. 중복설문조사결과는 쇼핑(84.3%), 식도락관광(60.7%), 자연경관 감상(36.1%), 고궁-역사유적(23%), 유흥-오락(14.7%) 등의 순이다. 주요 쇼핑 품목은, 향수-화장품(85.4%), 의류(39%), 식료품(35.1%), 피혁제품(14.9%), 인삼-한약재(14.6%), 신발류(12.9%) 순이다. 쇼핑장소는 시내면세점(72.7%), 명동(39.9%), 공항면세점(28.6%), 대형할인점(21.1%), 백화점(20.1%), 동대문시장(19.1%), 소규모상점(18.3%) 순이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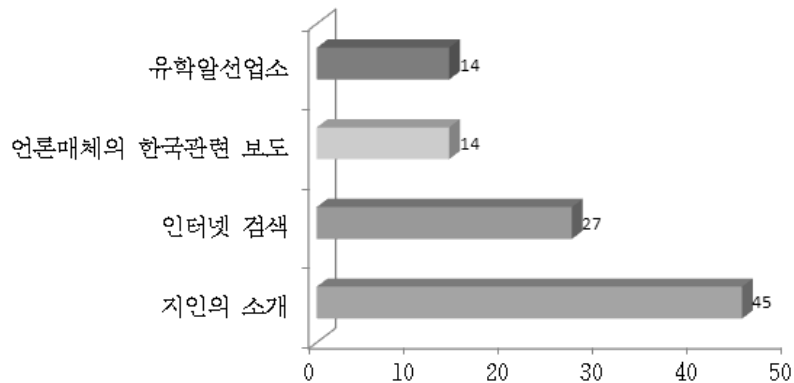
〈그림 8〉 방한 ‘요우커’의 주요 쇼핑 장소(左)와 품목(右) (단위: %, 중복응답)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방한 ‘요우커’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이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요우커(遊客)’ 비중이 1위를 점하고 있다. 이중 여성 ‘요우커’ 비중이 증가추세이고, 2015년에는 62.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0대까지가 가장 많다.
- 이들의 주요 방문지는 대부분 서울과 제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충청권지역을 방문하는 ‘요우커’의 비중은 미미하다.
그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서울과 제주 지역에 비해 항공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기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방한 목적은 주로 쇼핑이고,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은 향수와 화장품이다.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

- 충남 소재 대학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내에서 충청남도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경로는, 지인의 소개(45%), 인터넷 검색(27%) 순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언론매체의 한국관련 보도(14%)와 유학알선업소(14%)가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림 9〉)



〈그림 9〉 중국인유학생이 충남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 (단위: %)

자료: 박인성 · 이인배 · 강수현(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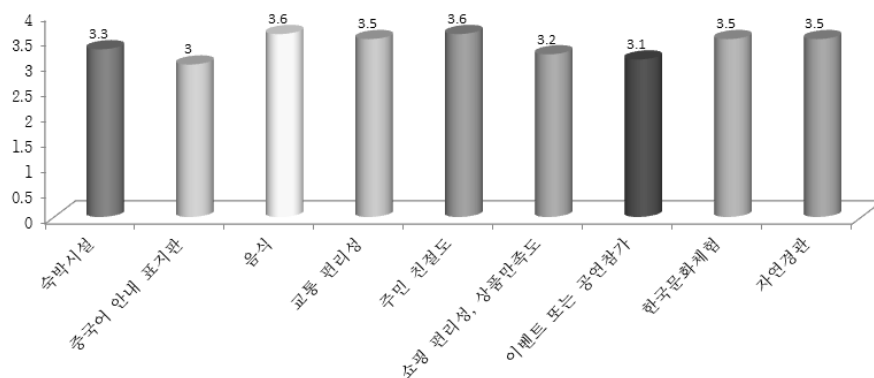
- 방문했던 충남지역 중 인상이 좋았던 곳의 순서와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1위 지역이 공주시였고, 그 이유는 백제문화제와 조용한 자연경관이라고 응답했다. 단, 응답자 대부분이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공주시 다음으로는 천안시였고, 그 이유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쇼핑이나 교통이 편리해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외에도 계룡산의 자연경관과 군(軍)문화제에 대한 인상이 좋았다는 계룡시, 바다와 해양자연경관이 좋았다는 보령시와 태안군, 그리고 논산의 딸기축제 등을 꼽았다.

〈표 2〉 충청남도 내 지역 중 가장 좋은 인상을 받았던 곳

지역명	1순위	2순위	3순위	주요 이유
천안시	29%	33%	25%	큰 도시, 쇼핑의 편리성
공주시	58%	29%	13%	역사 문화, 자연경관
보령시	4%	8%	8%	자연경관(바다), 머드축제
논산시	0%	4%	13%	논산 딸기
계룡시	4%	17%	17%	계룡산, 계룡 군대문화제
부여군	0%	8%	13%	역사 문화
아산시	0%	0%	4%	온천
청양군	0%	0%	4%	자연경관(산), 청양고추
태안군	4%	0%	4%	자연경관(바다)

출처: 박인성 · 이인배 · 강수현(2015), 45쪽

- 중국인 유학생들이 충남지역 내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음식(3.6)과 주민 친절도(3.6)이다. (〈그림 10〉)
단, 한국 전체에 대한 관광 만족도에서는 교통과 쇼핑의 편리성이 가장 높았다.
한편, 중국어 안내 표지판에 대한 만족도는 충남이 가장 낮았다.



〈그림 10〉 중국인유학생의 충남도 관광자원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주: 1점이 매우 불만족이고, 5점이 매우 만족임.

- 중국인 유학생들이 충남지역에 ‘요우커’ 를 유치하기 위해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

충남지역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장소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 중국인들은 물론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중국인들도 충남지역 내 관광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 한중 양국 간 교류의 확대와 소위 ‘한류(韓流)’ 의 영향으로 한국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서울과 제주도 정도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남의 관광상품 홍보에 충남지역 현지 대학 등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인 유학생 대상 충남지역 문화체험관광 상품을 만들고, 이들의 체험을 중국의 부모, 친지들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충남 소재 대학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소위 ‘효도관광상품’ 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제안이 특히 주의를 끌었다. 즉, 학부 유학생일 경우 4~5년, 대학원 생일 경우에는 3~5년 유학기간 중에, 이들의 부모 또는 친지들이 한번 이상 한국을 방문할 것이므로, 이들을 겨냥한 “충남 특색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자는 것이다.

한편, ‘효도관광’ 또는 ‘친지방문’ 관광상품 추진 시에 한국방문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많았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현지 관광 통역이나 가이드, 그리고 문화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방한 ‘요우커’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김치만들기, 전통시장, 전통음식만들기, 농어촌 문화 체험 등 충남지역 특성과 연결시킨 특화된 테마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지역 및 관광지별 역사와 전통문화 특성, 그리고 지역의 역사전통과 관련된 이야기 발굴 등과 연결된 관광상품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충남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만 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으므로 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한 지역 간 연결 대중교통 등 교통여건 개선과 관광객 수용기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및 제안도 있었다.

〈표 3〉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 위한 중국인유학생의 제안

구분	개 인 의 견
인프라 부분	공항 및 대중교통 편리성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함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숙박시설이 미비함
관광 부분	역사문화 및 전통문화 등 지역특성과 연결한 테마관광 필요함
	중국인들은 직접 체험하는 것을 좋아함 : 김치만들기, 전통시장, 음식문화 체험, 농촌문화 등 한국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필요함
홍보 부분	중국 현지에서 충남지역 잘 모름,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함
	도내 소재 대학 재학중인 중국유학생들을 적극 활용한 중국 현지 홍보 방안 수립 필요함
중국 유학생 활용 부분	중국 유학생회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행사 기획 개최
	중국 유학생들을 활용한 충남 관광 가이드나 통역 등 문화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필요.
	중국 유학생 대상 문화체험관광 패키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필요
	중국 유학생 부모 대상 효도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친지 초청시 관광비자 발급절차 및 서류 간소화 필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 필요
기타 부분	중국어 안내판 부족, 충남 관광지 경쟁력 약함, 중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개발 필요,

출처: 박인성,이인배,강수현(2015), 48쪽

Ⅳ. 충남형 ‘요우커(遊客)’ 유치전략

1) 기본방향

- 관광 및 산업정책을 포함한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충남도가 백제문화유적 유네스코 등재에 대비해 조직 운영해 온 타스크 포스팀(TF)이 ‘요우커’유치 전략을 총괄하고, 홍보 및 지역마케팅, 교통망과 관광수용기반 확충, 환경정비 등 분야 및 부문별 목표와 실천수단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층차별 단계별 하위 정책수단을 충남 특색에 맞추어 구체화, 체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기존의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면서 기업과 사회단체 관련사업과 연결한다.

- 자력 추진이 가능하고 신규투자 수요가 적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추진한다.
자금 수요가 큰 대형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책사업화 논리개발 작업과 연결한다.
- 도와 지역과 주민에 사업수익 귀속 원칙을 견지한다.

2) 충남형 ‘요우커’ 유치전략

- 충남도와 각 시·군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파트너 성, 시·현과의 관계망(關係網)을 적극 활용한다.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로 교류하고 있는 중국내 파트너 성(省), 시·현에 소재한 중국 현지 여행사와 전략적 제휴 등의 방식으로 충남지역 중국전담여행사를 설립, 육성한다.
충남지역내 각 대학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이들의 중국내 부모, 친지들을 한국 방문 프로그램과 연결, 확대한‘효도 관광’, ‘친지방문’등의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한다.
- 충남도와 각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 파트너 성, 시현 지역의 공무원 및 기업체 간부를 대상으로 ‘정책연수관광상품’을 설계-운영한다.
홍동마을, 청양 알프스마을, 서천 친환경마을 도량 살리기 등 3농혁신과 6차산업 성공사례 대상 농촌관광 및 정책연수상품 개발, 테마체험형 관광상품을 설계-운영한다.
시·군의 친환경 마을 만들기 등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혁신 분야의 성공사례와 중국의 ‘신농촌(新農村) 건설’ 경험사례 등을 소재로 한 상호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시·군의 지역별 관광자원의 특성과 잠재력을 결합하며 연계시킨다.
내발적 발전 차원의 점진적 상향식 연계전략과 중앙의 예산지원 획득을 위한 국책사업화 전략으로 구분한다.
충남의 해안관광자원축을 태안-서산-당진 동서방향 횡축(橫軸)과 서산-홍성, 보령-서천 남북방향 종축(縱軸)으로 연계시키면서 해양경관 및 휴양, 해양헬스케어 관광상품을 설계-운영한다.

● 개별자유여행 관광객에 중점을 둔다.

(싸구려) 단체패키지 관광이나 최근에 서울과 인천에서 시도했던 ‘치맥파티’류의 이벤트 성 행사 보다는 갈수록 다양화 되고, 증가추세에 있는 테마별 개별 테마 자유여행객에 초점을 맞춘다.

● 랴오닝성(遼寧省), 허베이성(河北省), 산둥성, 장쑤성(江蘇省) 등 환황해 및 환발해 만 연해지구를 대상으로 대(對)중국 문화관광교류 및 관광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요트, 마리나 해양스포츠 등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분야에서 중국 산둥성과 저장성(浙江省) 등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남색(藍色)경제’정책과 연결한 관광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한다.

● 대(對)중국 장소마케팅과 홍보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충남지역 주요 시·군과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중국어판으로 제작, 배포한다. 중국어판 충남관광홈페이지 구축과 충남여행가이드북 발간 배포,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파트너 도시 대상 홍보사업 추진, 지역내 중국인유학생과 이주민을 활용한 대(對)중국 장소마케팅과 홍보사업 추진, 국내 및 중국여행사 대상 마케팅과 팸투어 추진 등의 방안이 있다.

충남도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웨이신(微信, we chat) 등 스마트폰의 SNS 기능 활용 등을 통해, 충남 관광지에 대한 여행 인상기와 풍경 및 이벤트 참가, 체험활동 사진 등을 중국내의 친지들에게 소개, 전파하도록 적극 장려한다.

● 중국내 관광관련업체와 언론매체 등과 관계망을 구축하고, 현지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

도(道)의 상하이(上海) 충남사무소와 천안시의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원덩구(文登區) 상품전시관, 그리고 보령시의 상하이시 청푸구(青浦區)의 상품전시관 등, 도와 시·군이 설치한 현지 중국내 사무소와 전시관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방한 ‘요우커’를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발굴, 조성, 운영한다.

중앙의 관광정책과 방한 ‘요우커’가 선호하는 행태와 수요를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추고 연결한다.

천안, 아산의 화장품과 온천 및 스파, 의료관광, 보령의 머드화장품과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등을 특화하고, 여성‘요우커’증가추세와 연계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시내면세점과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의 쇼핑 시설과 장소를 확충하고, 충남형 지역 특산품과 판로를 개발, 관리한다.

도로 표지판과 관광시설, 간판 및 편의시설에 중국어를 병기하고, 중국어 구사 가능 관광안내원과 관광업 종사 인력을 양성한다.

● **충남의 역사문화 스토리를 발굴 및 개발한다.**

공주-부여의 백제역사문화유적관련 스토리 발굴, 당진과 서산의 중국사신 행차 재현, 불교 도래과정과 사찰, 교황 방문지인 솔피성지, 해미읍성, 서천의 성경 도래지 등 천주교의 도래과정과 종교 박해, 그리고 성환의 청일전쟁 관련 유적지 조성과 스토리와 연결한 관광상품 설계 등이 있다.

● **국내 관광객 유치전략과 연계시킨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방문지이자 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 항구 소재지인 서울, 인천, 제주 등지와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관광자원을 연결한 관광상품을 설계-운영한다.

관광거점에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중저가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 **당진항, 대산항(서산), 보령신항 등 대(對)중국 교류 거점항만시설과 연결교통망을 확충한다.**

대산항 및 당진항 대(對)중국 여객선 취항 확대와 크루즈 입항 추진, 그리고 연계 교통망으로 대산-당진,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평택-익산간 제2 서해안고속도로 등과 연계교통망 확충을 추진한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룡옌(龍眼)항과 서산시 대산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항만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 주변지역과의 교통망 확충 연결사업에 대한 국책사업화 논리를 적극 개발한다.

● **서산 해미의 군용 비행장을 민항기의 한-중 간 노선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對)정부 설득논리 개발과 여론 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과도기에는 청주공항을 활용, 연계하여, 충남지역 인삼쇼핑과 백제문화권 관광상품 발굴 및 판매 전략을 추진한다.

- 협동조합형 기업, 두레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결합시킨다.

중앙부처와 대형 여행사 등이 관광패턴과 기본개념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지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간다.

관광분야 협동조합은 정부나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개별화된 관광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이 주도하여 개별 자유여행자의 다양한 선호 항목에 맞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지역관광발전을 통해 획득한 과실을 지역과 주민에게 귀속시킨다는 틀속에서 지역주민 주도로 아래에서 위로, 작은 운동경험을 지속적으로 실천, 축적해 나간다.

참고 문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박인성 · 이인배 · 강수현(2015), “전략연구 2014-31 · 중국인 입국관광객 충남 유치 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최경은(2015),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 동향”, 인천발전연구원.
 유다형(2014), “중국인 해외관광객 현황분석: 여행객 규모 · 구성 · 선호”, 인천발전연구원.
 中國公民出境(城市)旅遊消費市場調查報告(2014/2015), 世界旅遊城市聯合會.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한국관광공사(<http://www.visitkorea.or.kr/>).
 中國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中國國家旅遊局(<http://www.cnta.gov.cn/>).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비웨이닝 ·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 ▶ 1. “13.5계획”기간 중국 전기에너지 대체 추진방안 실시
- ▶ 2. 휴대폰과 인터넷 금융거래 실명제 등록 실시
- ▶ 3. 동북진흥의 새로운 위치와 목표
- ▶ 4. 랴오닝 선양 첨단 장비 제조 단지가 동북 진흥의 신엔진
- ▶ 5. 중국 지린성의 농업+인터넷
- ▶ 6. 2016년 베이징 세계관광발전대회 개최
- ▶ 7. 구이양시 빅데이터 “십 · 백 · 천 · 만” 인재육성계획 시행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1. “13.5계획”기간 중국 전기에너지 대체 추진방안 실시

- 2016년 5월 23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기에너지(電能) 대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현재 전력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단계별로 전력시장화 거래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림 1〉 중국 태양광발전의 모습

출처: 바이두(www.baidu.com)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재정부, 환경보호부, 주택도농건설부, 공업정보화부, 공통운송부와 민항부(民杭部)가 공통적으로 발표한 상기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부주민의 난방분야이다. 앞으로 북부주민의 난방방식은 주로 열병합 발전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가스(열에너지)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못한 시내, 교외, 농촌 등 지역은 아직도 개별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방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축열식 전기보일러와 난로 등 각종 전기난방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난방방식은 북부 난방 체제 중에서 보조난방방식에 속한다.

둘째, 생산제조분야이다. 생산제조분야에서 전기에너지 대체 방안을 산업의 특징과 결합시켜야 한다. 조건을 만족한 지역은 대기오염방지와 산업발전 수요에 의해서 공업과 농업 생산 중에서 전기보일러, 전기관개 등을 보급해야 한다.

셋째, 교통운송분야이다. 각종 차량, 선박, 공항 설비 등에서 액체연료대신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전력공급과 소비분야이다. 주로 전력시스템의 운행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 13차5개년계획(2016~2020) 기간, 중국은 위의 4개 분야에서 전기에너지 대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단말소비부분에서 약 1.3억톤의 개별용 석탄과 연료소비를 대체하여 석탄소비에서 발전용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1.9% 제고시키고 에너지단말소비에서 전기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5% 증가시키고 전기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약 27%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신규 전기소비량이 약 4500억 킬로와트 증가하면 연기·먼지,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의 방출량이 각각 약 30만톤, 210만톤, 70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석탄연소와 연료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모그 형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에너지 대체를 실시한다면 에너지소비혁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녹색에너지 발전전략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 휴대폰과 인터넷 금융거래 실명제 등록 실시

- 최근 공업정보화부는 “휴대폰 사용자에게 대한 실명제 등록”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통신사들은 이동통신 사용자의 실명 등록 비율이 95%를 초과하도록 해야 하며 2017년 6월 30일까지 모든 이동통신 사용자를 실명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온라인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고 개인 인터넷 금융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공업정보화부 인터넷안전관리국 책임자에 따르면 작년부터 통신사는 각종 할인 조치를 통해 미실명 사용자의 보충등록을 장려 및 인도하였고 이를 통해 약 4000만 명의 사용자가 보충등록 수속을 했고 지금까지 사용자 중에서 실명 등록된 비율이 92%에 달한다. 반면에 약 1억명의 사용자가 아직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는 전화, 메시지, 편지, 공고 등 방식을 통해 실명을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알려 주고 규정된 기간 이내에 사용자 등록 수속을 보충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등록 수속을 보충하지 않으면 통신사는 사용자의 통신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등록을 다시 재촉해야 한다. 통지한 기간이 초과되면 통신사가 법에 의거해 사용자의 통신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중국은 “반테러법”에 근거해 오는 7월부터 비은행 인터넷 결제에도 전면적으로 실명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중국인민은행은 “비은행 지불기구 인터넷 결제 업무 관리 판법(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管理办法)”을 발표했다.

- 2016년 7월부터 인터넷 금융거래 계좌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해야 하고,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서 계좌이체나 인터넷 지불 등 금융거래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비은행 지불기구가 인터넷금융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계좌를 만들 때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주소만 사용해도 계좌를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 7월부터 인터넷 지불 플랫폼인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가 소속된 즈푸바오(支付宝)와 텡쑤(腾讯)이 소속된 웨이신(微信: 한국의 카톡과 유사함)을 사용한 금융거래시 실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분적인 거래기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 동북진흥의 새로운 위치와 목표

- 최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동북지구 등 구공업기지 전면진흥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을 밝혔다. ‘의견’을 통해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 하에서 동북지구의 전면적인 진흥 방향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동북지구를 전국에서 중요한 경제발전 핵심지구로 육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 장비제조업기지, 중대기술장비 전략기지, 국가신형원자재기지, 현대농업생산기지와 중요 기술혁신, 연구개발 기지로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

- 동북지구는 중국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경제·사회 대(大)권역이다.

동북지구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역사적 기여도와 현실적 전략 측면에서 중국 공업화 발전과 국가식량안전을 보장하는 초석이고, 국토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방어선이다. 현재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대 전략, 즉,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협력발전, 장강(长江)경제지구발전 전략을 배경으로, 동북지구 등 구(老)공업기지 전면적 진흥을 3대 전략처럼 중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동북지구는 중국 공업화의 발원지로서 중국 공업화 발전과정과 공업체제수립에 역사적 기여를 했다. 따라서, 동북지구의 전면적 진흥을 실현할 수 있는 선택은 바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장비 제조업기지, 중대기술장비전략기지, 국가신형원자재기지, 현대농업생산기지와 중요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기지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가속화된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업분야의 발전추세는 큰 변화를 나타냈다. 동북지구는 중국 국가식량안전을 보장한 초석(基石)의 역할을 담당했다. 1985년 동북지구의 식량생산량은 전국의 9.6%를 차지했고 2000년 11.5%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19%에 달했다. 향후 동북지구는 중국 식량생산량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 체제 및 기제(機制) 혁신은 동북지구의 전면적 진흥을 필히 거쳐야 할 길이다.

동북 구(老)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한다면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할 수 있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혁신창업을 장려하고 민생보장과 개선 등 4대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첫째, 동북지구의 체제·기제를 보완하려면 지구별 기능구역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는 “발진(振)”에서 “흥성(興)”으로 전환해야 하며,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전면적으로 승급(昇級)시킨 후에 “실험시범구-중심도시-도시군(城鎮群)-대권역”의 계단식 지구발전모델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신형 현대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협력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혁신력을 통해 산업의 수익과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 도시발전의 질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 **신사회발전환경은 “동북지구 진흥” 실현을 보장한다.**

2003년부터 “동북지구 진흥” 전략 실시 이후 새로운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재유치가 중요했다. 지방정부는 지구의 특성에 근거해 맞춤형 인재 정책을 제정하고 취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는 지구자원우세정책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노동집약형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 랴오닝 선양 첨단 장비 제조 단지가 동북 진흥의 신엔진

- 중국 동북 선양(沈陽)의 훈허(渾河)강 북부에 새로운 공업단지가 세워지고 있다. 이 단지는 중국·독일 양국에서 선양에 공동 설립한 첨단장비제조단지이다. 계획면적이 48km²이고 스마트 제조, 첨단장비, 자동차 제조업, 공업서비스 및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 중·독 첨단장비제조단지의 위치는 랴오닝(遼寧)성 선양시 티에시(鐵西)구에 있는데, 티에시구는 중국의 중요한 장비제조업기지이고 약 100만 명의 산업기술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이 이미 482개 입주해 있고 세계 500대 기업도 50개 있다. 따라서 티에시구는 별칭으로 “동아시아의 루르”로 불리기도 한다. 2015년 중·독 장비 단지는 독일 공업 4.0 연맹과 전면적인 협력을 시작했다. 지멘스사 등 유명한 독일 대기업들이 선양의 산업발전, 제조업 전환,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림 2〉 BMW 그룹(선양) 엔진 공장 모습

출처: 바이두(www.baidu.com)

- 2016년 1월 22일 이 단지에서 총 90만 m^2 의 화진-BMW(華晨寶馬) 신엔진공장이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은 BMW 그룹이 유럽지구 이외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엔진 공장이다. 선양에 있는 엔진공장은 유럽의 3개 공장과 공동으로 BMW의 최고 엔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중·독 장비단지의 책임자는 “단지에서 자동차 및 부품, 스마트 제조, 첨단기계장비 등 독일기업의 투자프로젝트가 이미 144개에 달하고 준공한 프로젝트가 37개 있다”고 밝혔다.
- 중국 최초의 중·독 첨단장비 제조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서 2025년까지 중·독 장비단지는 연구 및 개발, 디자인, 생산, 서비스 등의 일체화의 세계급 제조업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단지내 독일과 유럽연맹(EU)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5. 중국 지린성의 농업+인터넷

- 지린성은 중국의 중요한 식량 생산지구이다. 최근 농업대성(大省)으로 떠오른 지린

성은 인터넷과 농업산업을 결합하며 농업생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린성정부는 지도의견을 제시하고 인터넷 이용을 격려하며 농업 현대화 수준의 향상을 추진중이다.

- 벼농사로 유명한 지린시 따황디(大荒地) 마을은 작은 감시실에서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논밭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전 생산과정에 인터넷과 기계설비를 운용하면서 생산비용을 약 15% 줄였고, 생산량은 18% 늘렸다. 따황디 주민 리증(李正)은 “컴퓨터를 사용한 우 시간과 힘은 절약되고 수익은 늘었다”고 했다.



〈그림 3〉 따황디 마을의 감시실 모습

출처: 바이두(www.baidu.com)

- 저우잉농목유한책임회사(雛鷹農牧有限責任公司)의 경우, 수 백개 돼지우리에 노동자가 한명도 없고 중앙 관제실에서 감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간단히 조작하면서 돼지우리의 청소, 먹이 주기, 환기 등 양돈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회사의 사장인 류지엔푸(劉建甫)는 “옛날에는 노동자가 뛰어다니면서 힘들고 더러운 일을 했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 축산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이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양돈 정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 자오허(蛟河)시는 목이(木耳)버섯 재배로 유명하다. 이제 농민이 집에서 매집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브랜드화된 목이버섯이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에서 유명한 몇몇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자오허 농민이 이미 300개 썩이나 인터넷숍을 설립했다. 목이버섯 재배자인 리자전(李佳珍)은 “인터넷판매를 통해 농산품의 가격과 수량이 올랐고 수익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자오허시처럼 지린성의 우수 농산품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된다. 농촌 물류 배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농촌 인터넷숍” 규모의 확대를 격려하며 좋은 품질과 가격의 농산품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6. 2016년 베이징 세계관광발전대회 개최

- 2016년 5월 19일 베이징에서 중국정부와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처음으로 세계관광발전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전 세계 107개 국가와 15개 국제기구의 대표, 관광연구기관, 대학, 관광업체 등 관련된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을 통한 발전과 평화 추진”이란 주제로 세계관광업 발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중국국가관광국 리진자오(李金早) 국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인 출국 관광객수가 6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중 1.5억 명의 중국관광객이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관련된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중국 국내에서는 관광산업을 통해서 1200~1400만 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5년 동안 중국 출국 관광객수 6억명 초과 전망

유엔세계관광기구의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중국은 지속적으로 세계 최대 출국관광국이 되고 세계 관광업 수익중 기여 비중이 13%를 점했다. 2015년 중국 국내 관광객총수, 입국 관광객수와 출국관광객수가 각각 41억 명, 1.3억 명과 1.2억 명에 달한다. 중국 GDP(국내총생산)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은 10.8%를 초과했고, 관광업 종사자 인구수는 총종사자의 10.2%에 달했다.

이제 중국은 ‘대중관광’시대로 진입했다. 관광업은 종합적인 산업으로서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더 큰 역할과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동향유(共享)’ 5대 발전 이념에 따라서 전영역 관광의 발전방식을 탐색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비자신청 제한과 국경관광정책을 완화하고, 입출국 수속을 간소화하고 교통운송 시간과 관광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 향후 5년간 관광업 통해 천만명 이상 인구 빈곤에서 탈출

중국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관광업을 통해서 1200~1400만 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킬 계획이다. 이는 중국내 총빈곤인구의 17~20%를 차지한다. 관광업은 종합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 발전을 통해 교통운송업, 요식업, 호텔업 등 서비스업종도 연계 발전시킬 수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업 종사자 인구수가 한 명 증가하면 연관 서비스업의 5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7. 구이양시 빅데이터 “십 · 백 · 천 · 만” 인재육성계획 시행

- 최근 구이저우(貴州)성 수도인 구이양(貴陽)시는 구이양시 빅데이터 “십 · 백 · 천 · 만” 인재 육성 계획 실시방안《大數據“十百千萬”人才培養計劃實施方案》을 제시했다. “실시방안”에 따르면 2018년까지 구이양시는 10명 이상의 빅데이터 선도 인재, 100명 이상의 빅데이터 혁신 인재, 1000명 이상의 기관과 기업 · 사업 단위 빅데이터 우수 인재, 수만 명의 빅데이터 전문인재와 기초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림 4〉 구이양시 빅데이터 전시 센터 모습

출처: 바이두(www.baidu.com)

- “10인 계획”

시내 빅데이터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국내외 선두 기술을 가지고 있는 10명 이상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인재+팀+프로젝트” 모델을 사용하고 지원한다. 육성 대상의 프로젝트와 팀 상황에 근거해 구이양시는 3년 내 최고 100만 위안(약 2억 원) 전문항목경비를 지원하고, 혁신 창업 플랫폼의 신고 및 인재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100인 계획”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업·사업 단위에서 혁신과 발전이 가능하고 시범효과를 가지고 있는 고수준 혁신 인재를 100명 이상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인재+프로젝트” 모델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연구 평가에 따라서 우수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시급(市級) 과학기술 육성 단지에 입주하고 임대료 감면 혜택 등 정책지원을 한다.

- “1000인 계획”

기관과 기업·사업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자질이 좋고 실무능력이 강하며 빅데이터 관련 지식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인재를 10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론과 연구, 실질 업무 등을 수행한 후에 각 분야별로 빅데이터 관련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인재를 한 명 이상 확보한다는 것이다.

- “10000인 계획”

빅데이터 산업 관련 기초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구이저우성의 교육자원을 통합하여 대학교나 전문교육기관 등 관련 교육기관에 각종 정책혜택을 제공하며, 학력교육과 단기 연수 등의 수단을 통해 10000명 이상의 전문인재와 기술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문헌

2016. 5. 6. 贵阳日报. “贵阳启动大数据 ‘十百千万’ 人才培养计划”.
2016. 5. 6. 经济日报. “全面落实新一轮东北振兴的新定位与新目标”.
2016. 5. 15. 中国新闻网. “‘东方鲁尔’ 牵手 ‘德国制造’ 锻造东北振兴 ‘新引擎’ ”.
2016. 5. 20. 北京青年报. “国家旅游局局长: 中国将依靠旅游扶贫 1200万人口”.
2016. 5. 23. 发改委网站. “实施电能替代 推动能源消费革命 促进能源清洁化发展”.
2016. 5. 24. 新京报. “工信部推 ‘史上最严实名制’ ”.
2016. 5. 27. 央广网. “《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管理办法》7月1日正式施行”.
2016. 6. 11. 新华社. “中国吉林为农业插上互联网 ‘翅膀’ ”.

현대중국의 이해

1. 중국공산당 창당과 마오쩌둥의 징강산 입산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현대중국의 이해” 연재를 시작하면서...



“중국을 제대로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광활한 국토와 14억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큰나라(大國)이고, 장구한 역사 기간을 거쳐오면서 각 지역별로 자연환경, 민족, 문화, 사회풍습, 정치·경제제도 등의 차이가 매우 크다. 게다가 근대 이후 신해혁명(1911)과 5.4운동(1919), 중국공산당 창립(1921), 토지혁명전쟁, 중공 정권 출범 이후에 진행된 사회주의 개조 시도와 좌절,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다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체제”로 전환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얹혀서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을 제대로 알려면,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다시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전 신해혁명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창당, 국공합작과 국공내전의 배경과 흐름, 그리고 그와 연관된 주요 사건의 내용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실한 대(對)중국 전략과 그 기초와 전제가 되는 중국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대중국의 이해” 연재를 시작하는 목적은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본지 6호(2016. 1-2월호)와 7호(2016. 3-4월호)에서 “중국 이해를 위한 해설”란을 신설하고,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 시기로 나누어 중국정부가 수립한 역대 5개년계획의 수립배경과 시대 상황, 주요 내용과 특징 등을 연재한 것도 ‘중국 제대로 알기’를 위한 시도였다. 이번 호부터는 고정난 제목을 보다 포괄적으로 “현대 중국의 이해”로 바꾸고, 중국공산당 출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주요 사건의 배경과 성격, 또는 주요 인물 소개와 관련 이야기 등을 정리, 소개하고자 한다.

1. 중국공산당 창당과 마오쩌둥의 징강산 입산

■ 중국공산당 창당(1921.7)

- 중국공산당이 창당을 선언한 중공 제1차 전국대회는 1921년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되었고,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장소는 당시 상하이 시내의 프랑스 조계지에 있던 사립학교 보원여교(博文女校)에서 시작했으나, 회의기간 중 간파된 국민당 밀정들의 움직임에 위험을 느끼고, 마지막 회의는 저장성(浙江省) 자싱(嘉興)의 난후(南湖) 호수에 배를 띄우고 선상에서 진행했다.



〈그림 1〉 중국공산당 제 1차 전국대회의 장소와 참석자

출처: 바이두(www.baidu.com)

이 회의에는 베이징, 상하이, 후베이성 우한(武漢), 후난성 창샤(長沙), 산둥성 지난(濟南), 광둥성 광저우 등지의 지역 대표 12인 등 총 13인이 출석했다.

신해혁명과 5.4운동 이후, 중국 지식인 사회에 사회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사회주의 운동

을 주도하면서, 중국공산당 창당에 중요한 공헌을 해 온 좌파 이론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대학 교수 리다자오(李大钊)와 천두슈(陳獨秀)는 각각 베이징과 광저우에서 다른 일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한다.

1921년 7월 중공 제1차 전국대회에 마오쩌둥(毛澤東)은 허수형(何叔衡)과 함께 후난성 대표로 참석했다. 13인 참석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고, 마오는 평균 연령이었고, 허수형은 45세로 회의 참석자중 최고령이었다.

중공 제1차 전국대회에 참석한 13인의 그후 행적을 보면, 절반 이상인 7명이 탈당 또는 출당을 당했고, 4명은 국민당에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죽을 때까지 중공에 남아 있던 사람은 마오쩌둥과 후베이성(湖北省) 대표로 참석했던 동비우(董必武) 2명 뿐이다.

- 중공 제1차 전국대회 개최 당시 중국 전국의 공산당 당원수는 모두 50여명에 불과했고, 당원 대부분이 신해혁명(1911년)과 5.4운동(1919년)에 참여했거나 러시아의 10월 혁명(1917년)의 성공과 함께 중국에 들어와 확산되고 있던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리다자오와 천두슈가 1915년에 창간한 잡지 ‘신청년’은 당시 중국의 청년 지식인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1921년 소수의 당원과 그 대부분이 지식인으로 구성되어 출범한 중국공산당이, 이후 혁명 동력 동원과 조직을 도시와 노동자에 둔다는 전략 중점을 농촌과 농민으로 이전하고, 농촌 근거지에서의 해방구 건설과 토지혁명전쟁을 통해서 불과 28년만인 1949년에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를 궤멸시키고 그 잔당세력을 타이완으로 몰아내고 중국대륙의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 북벌전쟁 승리와 장제스의 쿠데타(1927.4)

- 1926년 7월에 국공합작의 국민혁명군이 북벌전쟁을 시작한 지 약 1년만에 우페이푸(吳佩孚)와 쑨촨팡(孫傳芳) 등의 군벌(軍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장강(長江)유역의 상하이, 우한(武漢), 난징(南京) 등 주요 도시를 장악했다.

신해혁명(1911년)은 청(淸) 왕조를 무너뜨리긴 했으나, 그 결과는 서구의 부르주아 혁명과는 달랐다. 즉, 민주적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초대 총통인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자신이 황제로 등극하기 위한 개인적 욕심을 위해 역주

행을 하면서, 혁명후 초보적으로 구축중이던 공화정과 헌정질서를 붕괴시켰고, 이후 중국 전국은 군벌이 할거하는 혼란·암흑 시대가 되었다.

당시 중국의 주요 군벌 세력은, 첫째, 3대 군벌로, 직계(直系) 군벌 우페이푸(吳佩孚)로, 약 20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허난(河南) 3개 성(省)과 허베이(河北)의 바오딩(保定)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둘째, 원래 직계군벌에 속했으나 독립하여, 약 20만의 병력으로 장쑤(江蘇),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푸젠(福建) 5개 성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쑨촐팡(孫傳芳), 셋째, 봉계(奉系) 군벌 장쥘린(張作霖)으로, 약 30만의 병력으로 동북3성과 러허(熱河), 차하얼, 그리고 베이징, 텐진지구 등을 장악하며 할거하고 있었다. 이 3대 군벌 외에도 산시성(山西省)일대에는 옌시산(閻錫山)이, 산서성(陝西省)일대에는 기독교도 장군인 평위샹(馮玉祥)이, 그리고 기타 각 성(省) 지역에도 수많은 소군벌(小軍閥)들이 있었다.

1921년 당시 중국 각지에서 군벌들이 거느린 무장병력의 숫자가 약 150만명에 달했다. 각 지방에 세력을 굳히고 할거하는 군벌들의 착취와 군벌 간의 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인민들의 고난과 원성이 높아지자, 당시 합작 상태였던 국민당과 공산당은 혁명의 완수를 위해 군벌과의 전쟁을 결정하고, 북벌전쟁을 감행했다.



〈그림 2〉 국민혁명군의 모습

출처: 바이두(www.baidu.com)

- 1927년 봄 북벌전쟁 승리후, 국민당내 우파 군인들과 대지주 및 자산계급, 그리고 북벌군 총사령관으로 이들을 대표하는 장제스(蔣介石)가 노동조합과 농민협회(農會)의 활동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공산당의 활동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국 장제스는 그해 4월 12일에 상하이에서 “4.12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당내 좌파 소탕을 위한 소위 “청당(淸黨)”을 추진하여, 그해 말까지 당시 중국 공산당 당원의 80%에 이르는 30만명 이상을 살해했다.



〈그림 3〉 4.12 쿠데타의 한 장면

출처: 바이두(www.baidu.com)

장제스의 “4.12 쿠데타”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와 공산당원이 살해되었고, 이들이 구축해 놓은 노동조합도 붕괴되었다. 노동조합과 공산당원, 그리고 농촌의 농민협회(農會)를 겨냥한 체포와 학살은 장제스가 주도하는 국민당 우파가 장악한 지역을 넘어서, 북부의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이로써 북벌전쟁 기간중 유지되어온 제 1차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은 철저히 깨졌다.

■ 징강산 근거지 건설

– 무장투쟁과 토지혁명 전략으로 전환

- 중공은 장제스가 주도한 ‘4.12 쿠데타’로 제1차 국공합작이 와해된 후, 그해 8월 7일 후베이성 우한3진(武漢三鎮)중의 하나인 한커우(漢口)에서 긴급회의(八七會議)를 개최하고, ‘4.12 쿠데타’ 이후의 중국 국내 형세를, “국민당 신(新)군벌이 구(舊)군벌을 대체했고, 국민당은 이미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 연맹의 대표가 아니며, 그 반대편의 대지주, 대자산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반혁명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규정하고, 이후 중공의 혁명전략의 중점을 무장투쟁과 토지혁명 추진에 둔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민당과의 합작과 통일전선을 위해 양보하고 다음 단계로 미루어 두었던 전략으로 회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 당시 중공 중앙 지도부의 권력과 주요 정책 결정은, 소련이 파견한 코민테른 간부의 지도와 소련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유학파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중국 혁명전략의 중점을 도시 노동자(無產者)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노동자운동과 무장봉기를 통한 도시점령전쟁에 두고 있었다.

1927년 4.12 쿠데타 후, 같은 해 8월 1일에 주더(朱德)와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장시성(江西省) 성도 난창(南昌)에서 중공 최초의 무장투쟁으로 기록된 군사정변, 즉 난창봉기(南昌起義)를 일으켰고, 그해 9월에는 마오쩌둥이 공농혁명군을 이끌고 추수봉기(秋收起義)를 주도하며 후난성(湖南省) 성도 창사(長沙)를 목표로 진군했으나, 몇 개 노선으로 분산되어 진군하던 각 행로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을 지닌 적의 공격을 받고 좌절되었다.



〈그림 4〉 난창봉기 장면(회화)

출처: 바이두(www.baidu.com)

- 마오쩌둥은 창사(長沙) 공격 실패후, 아군의 객관적 병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도시점령전쟁 추진에 집착하는 당중앙의 군사적 모험주의 전략의 오류를 절감하고, 혁명 역량을 보존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전략의 중점을 농촌과 토지혁명에 두어야 하고, 그러한 활동 수행을 위한 혁명 근거지를 국민당군과 군벌의 세력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천하기로 결정한다.

마오는 당초 창사(長沙)로 진공 시 인솔했던 1만여명 병력중 남은 잔여부대원 1000여명을 인솔하고 후난성과 장시성(江西省) 사이의 산간지구인 징강산(井岡山)지구로 들어가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있었던 녹림당 토비(土匪) 두목 위안원차이(袁文才)와 왕취(王佐)를 설득, 회유해 자신의 부대인 공농혁명군 소속 지휘관으로 편입시키고, 토지혁명을 통해 대다수 빈농과 중농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징강산 근거지를 중심으로 세력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그림 5〉 추수봉기 장면(회화)

출처: 바이두(www.baidu.com)

- 창당 이후 소련 코민테른과 소련 유학파에 의해 좌우되던 중공 중앙의 혁명전략 중점이 도시 노동자에서 농촌 농민으로, 그리고 빈농과 중농의 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토지혁명전쟁으로 바뀌게 된 주요 출발점이 마오쩌둥이 주도한 징강산 혁명근거지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징강산 혁명근거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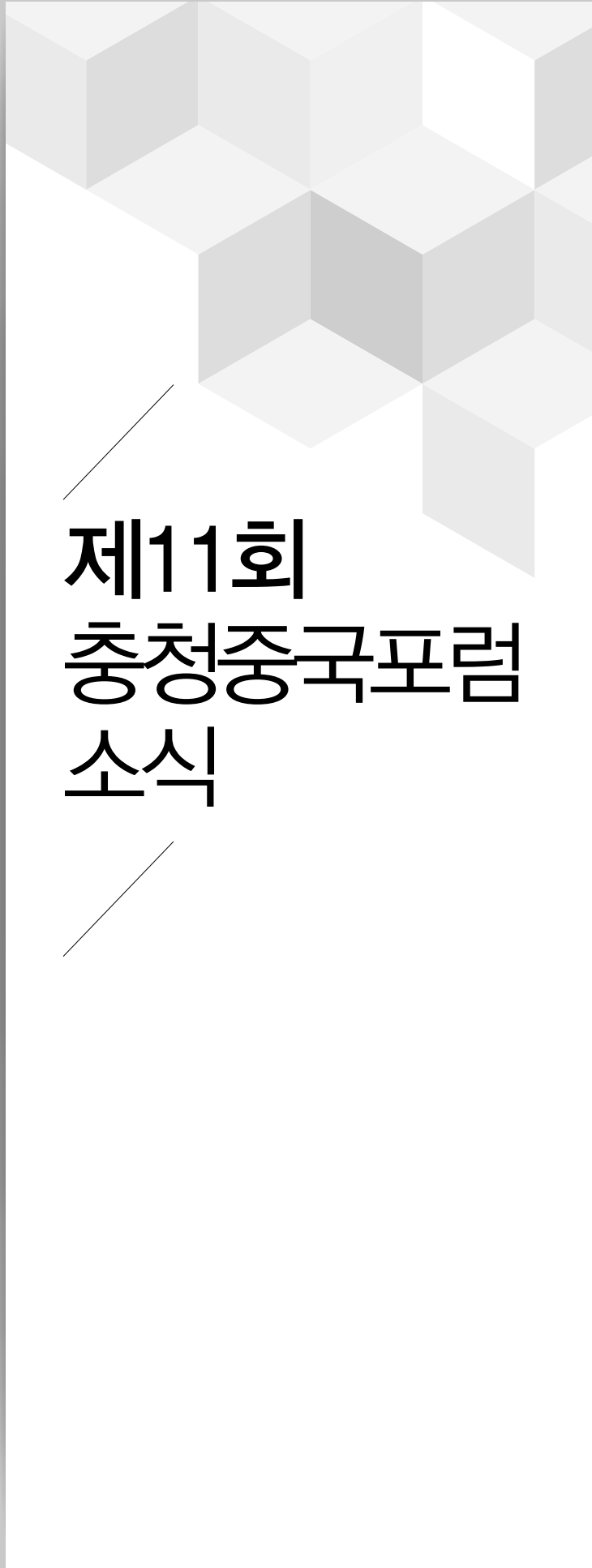
출처: 바이두(www.baidu.com)

이 같은 마오의 발상과 구상은 국공합작 기간 중에 “후난 농민조사” 등 후난성 농촌에서 농민협회 등의 활동상황 관련 조사 등을 통해 확신하고 다듬어 온 농촌과 농민의 실태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즉, 마오는 후난성 농촌에서의 활동경험을 기초로 줄곧 당의 혁명전략 중점을 농촌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4.12”쿠데타 직후 중공이 개최한 “8.7 긴급회의”에서는 더욱 확고한 어조로, “혁명은 손님들을 초대해 잔치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풍자를 섞어, 농촌 토지혁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오가 창안하고 주도한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중국 특색의 혁명전략”과 농촌-농민 유격전 전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오쩌둥 전술”은 징강산 혁명근거지 건설과, 이를 위해 시키기 위해 5차례나 진행된 국민당 군의 포위 토벌작전에 맞서 수행한 방어전쟁 실천 과정에서 만들어 졌다.(계속)

참고
문헌

- 성균중국연구소 엮음(2014), 『차이나핸드북』, 김영사.
- 조관희(2013), 『중국현대사 강의』, 궁리.
- 현이섭(2012), 『중국지(상,하)』, 인카운터.
- 서진영(1992), 『중국혁명사』, 한울아카데미.
- 中共中央黨史研究室(2011), 『中國共產黨歷史第一卷(1921-1949)上冊』, 中共黨史出版社.
- Ross Terrill저 · 胡爲雄외역(2009), 『Mao: A Biography毛澤東傳』,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柯延主編(2004), 『毛澤東生平全記錄(上)』,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1996), 『毛澤東傳(上)』, 中央文獻出版社.
- 陳志平主編(1993), 『中國革命史』,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中共中央黨史研究室(1991), 『中國共產黨歷史(上卷)』, 人民出版社.



제11회 충청중국포럼 소식

>> 제11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 지난 5월 25일(수),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25사단 조현규 부사단장 (前주중 한국대사관/주대만 한국대표부 무관)의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이란 주제로 제11회 충청중국포럼이 개최됐다. 이자리에는 충남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강희정 교수, 특허청 서동욱 과장(前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한중일 친선교류협회 이종만 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림 1〉 조현규 부사단장 강연 모습

- 조현규 부사단장은 중국의 당·정·군 관계와 국가전략, 그리고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당·정·군은 중국공산당, 중국정부와 중국인민해방군을 가리키며, 이들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당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이다.

전국당대표대회는 국가발전전략의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당내 인사를 선출한다. 중앙 정치국은 중국공산당 전국당대표대회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상무위원 7명을 선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정부인사를 임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주석은 5년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전국당대표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결정하고 당의 조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8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부의 최고권력기관이고 중앙군사위원회 아래 (종전의 전국 7대 軍區를 개편한) 5대 작전범위구 (戰區)를 두고 있다.

- 이어, 2002년 16차 중국공산당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전(前)국가 주석이 제시한“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란 목표 제시 이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를 “중국꿈(中國夢)”으로 공식 선포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했다.

“중국꿈”실현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중국 전국을 소강(小康)사회로 진입시키고,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부강(富強), 민주(民主), 문명(文明)을 갖춘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한다는 2개의 100년(兩個百年) 기치(旗幟)하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중국꿈”실현을 위해 국내 환경 안정, 주변국의 평화 분위기 정착 등 대내외 여건 조성과 국가 현대화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중요하며, 강군(強軍) 건설을 통한 국가 주권의 확보와 영토보호 등 핵심이익의 수호와 더불어 UN안보회의 상임이사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국으로써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계 강대국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3원칙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방에 의한 흡수 통일 방식을 반대하고 남북 간에 합의 형식, 중국의 지속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점진적 방식, 중국이 취하고 있는 “1국가 2체제(一國兩制)”방식의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중국의 외교활동 중점은 남북한등거리(等距離) 외교 및 한반도 현상을 유지하고 책임지는 대국 이미지 구축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천명하며, 중국의 경제발전이 한반도의 이익에 부합됨을 강조하고 통일 후에 영토회복 또는 역사문제를 거론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 조현규 부사단장의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는, 충남 부여군 자치행정과 소완영 교육협력팀장, 청양군 행정지원과 이후형 교류협력담당, 보령시 기획관리실 이병온 교류협력팀장 등이 각 시·군의 대(對)중국 지방차원의 교류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 및 설명했다. 또한 충남연구원 성태규 박사와 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강희정 교수, 특허청 서동욱 과장, 한중일 친선교류협회 이종만 자문위원장 등이 중국의 당·정·군 체계와 한국의 행정 시스템 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한·중 지역 간의 교류 협력 분야와 방식에 대해 토론했다.



〈그림 2〉 제11차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

- 6월 29일(수) 14시30분부터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공정여행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를 강연자로 모시고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12회 충청중국포럼 소식은 제 9호에 실겠습니다.
- 제13회 충청중국포럼은, 여름휴가 관계로 7월은 쉬고, 8월31일(수) 오후에 충남연구원 홍원표 박사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헤이룽장 실크로드 경제벨트”란 주제로 발표해주실 예정입니다.여름휴가 즐겁게 보내시고 8월 충청중국포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문의사항: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neong@cni.re.kr, 041-840-1175)〉

발간 목록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6.6)

호수	발간월	주제	비고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
제5호	2015년 11·12월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